

# 출장복명서

## 1. 출장개요

- (1) 출장목적: 중국 경제·산업 및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 (2) 출장자: 이재형
- (3) 출장일자: 2019.11.4.(월)-11.8(금) 5일
- (4) 출장지역: 상해 및 항저우

## 2. 출장일정

- 11.4(월) 10:00-11:00 이진면 박사(KIET, 상해경무대학(上海經貿大學)) 면담.  
14:00-15:00 김계홍(金繼紅) 교수(동화대) 면담  
15:00-17:00 Liu DongSheng 교수(동화대) 면담
- 11.5(화) 10:00-12:00 Liu ZhongYi 교수(상해 경무대학) 면담  
14:00-16:00 毛雁冰 교수(상해대 경제학원 부원장) 면담  
17:00-19:00 와이탄 및 푸둥지구 견학
- 11.6(수) 09:00-12:00 상해→항저우 이동  
14:00-16:00 史晋川, 姚先国 교수(절강대학) 면담
- 11.7(목) 10:00-11:00 王新宇 관리담당(절강방성과기(浙江邦盛科技) 유한공사  
13:00-17:00 효성화섬(Hyosung Chemical Fiber) 및 가흥경제개발특구  
(Jiaxing Economic Development Zone) 견학
- 11.8(금) 07:00-17:00 귀국

## 3. 방문기관별 활동내용 및 조사사항

### (1) 중국사회의 변모

- 이번 출장의 목적은 중국경제 및 산업의 최근 변화와 한중 경제관계, 미중 경제관계 등에 관해 중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음. 이번 출장의 방문기관 및 면담자와의 연결에는 KIET의 이진면 박사(상해대외경무대학 연수)와 김계홍 교수(상해 동화대)의 도움을 크게 받았음. 이 두 사람은 대부분의 출장일정을 함께 하였으며, 특히 김계홍 교수는 통역으로도 수고를 해주었음.

- 본 출장자는 2015년 상해와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음. 이번 출장을 통해 이후 4년간 중국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음.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았음.
  - 중국사회의 생활에 있어서 결제수단이 완전히 "알리페이"와 "웨이신"과 같은 제3자 결제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음.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노점상에서 거래되는 1위안 미만의 초소액 거래 까지도 제3자 결제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음.
  - 상해는 경제중심지답게 모든 것이 외관상으로는 선진국의 도시들 이상으로 현대화되었으나, 변두리나 이면에는 아직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이 남아 있음. 시민들의 옷차림 등은 매우 세련되어 마치 우리나라 변화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음. 시민들의 패션이나 스타일도 우리나라를 모방한 느낌이 컸음.
  - 출장기간 중 상해에서는 "수입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도 하였음. 중국과 지금까지의 수출지향의 정책에서 점차 수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수입의 확대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새로운 상품 및 기술의 소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2) 상해대외경무대학(上海对外经贸大学)

### ■ 면담자

- 黄建忠(Huang Jianzhong) 교수
- 叶作义(Ye Zouyi) 부교수

- 상해경무대학은 송강대학청(松江大學城)에 위치해있음. 송강대학청은 상해지역에 위치한 대학촌으로서, 2005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지금도 여러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음. 상해시가 상해지역의 학술 및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키워나갈 계획임.
  - 현재 상해외국어대학, 동화대학(東華大學), 화동대학(華東大學), 화동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 상해대외경무대학(上海对外经贸大学), 상해입신회계금융학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상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术大学), 상해시각예술대학(上海视觉艺术学院) 등 7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됨.
- 중국정부는 세무처리의 간소화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산

업별로 차별적인 조세의 적용을 통일하는 개혁을 단행함.

- 중국은 그 동안 제조업에 13-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서비스업에 3%-20%의 영업세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조세제도를 운용해왔음.
- 이러한 조차별적인 조세의 적용 방식은 세무 처리의 복잡함이나 조세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고 세율의 상한선을 낮추는 13%로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2016년 5월일부터 전국적으로 실행이 됨.

□ 이러한 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혁은 조세수입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이종과세의 해소나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부가가세와 동일한 증치세는 제품의 판매자가 세금을 납세할 때 매출에 포함되는 세액에서 중간재 구입 시 포함된 세액을 공제 받음.
- 그러나 영업세의 경우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전단계의 중간 투입을 위한 제조 제품에 대한 증치세와 서비스에 대한 영업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개혁으로 이를 제거함.
- 따라서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재정수입은 줄어드나 기업의 조세부담 저감으로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임.

□ 이러한 조세개혁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조세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 조세개혁 이전에는 증치세와 영업세의 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절반씩 분배함.
- 현재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별로 산업구조의 편차가 심하고 특히 상해와 같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 배분규모가 작아져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조세수입의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배분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

### (3) 동화대학(东华大学)

#### ■ 면담자

- 王雷(Wang lei) 교수
- 金继红(Jin Jihong) 부교수

-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인 미중 무역마찰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와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기존의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고 있음.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인들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함. 감각적으로는 돼지고기 값이 거의 5배 가까이 상승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국가 물가통계 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미무역마찰에서 중국의 내부적 힘을 모으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중국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미중 무역문제를 타결하고, 다시 국내경제를 다독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음.
- 미중무역은 공식통계로만 보아도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양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옴.
  - 2018년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제1위 무역국이며, 제3위 수출시장이고, 제1위 수입국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짐.
  - 서비스무역에서도 2006-2018년 기간 274억 달러에서 1253억 달러로 거의 5배가 증가하였고, 중국의 대미국 서비스무역적자는 2018년에 485억 달러에 이르며, 2018년 현재 미국은 중국인 유학 목적지 제1위임.
  - 이러한 미중무역의 발전과정은 양국의 강점을 서로 보완하고 상통함으로써 각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에 손해를 입힌 과정이 아님.
- 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으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국제무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이 1억 벌의 셔츠를 수출해야 미국의 보잉기 1대 수입을 커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이것은 무역의 법칙을 반영하는 것임.
  - 더욱이 미국은 오랜 기간 통화, 기술, 표준 등의 특정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 갖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정상적 이익 수준을 넘는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음.
- 미국의 기업과 가계도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값싸고 풍부한 상품을 수입하여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
- 물론 중국도 미중무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중국 국민이 부지런히 일해 얻은 것으로 결코 미국의 이익을 빼앗은 것이 아님.
- 또한 중국은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저 수준에 있고, 미국은 중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함.

#### (4) 상해대 경제학원

■ 면담자: 毛雁冰 교수

- 중국은 지난해부터 매년 상해에서 11월5-10일 기간에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음.
  - 시진핑 총서기는 2018년 5월14일에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피크포럼에서 국제수입박람회의 공식 개최를 선언하였고, 이후 매년 150여 국가 및 지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 국제수입박람회의 개최는 우선 중국이 개방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중국경제는 지난 40년에 걸쳐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고, 글로벌 경제성장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중국은 한편으로는 논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수입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임.
- 특히 중국정부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도 작용함.
  -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너무 크며, 이의 시정하기 계속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인상을 단행하여 미중 무역 마찰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해법은 중국이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수입을 늘리는 것이며 국제수입박람회 개최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중국의 수입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또한 국제수입박람회는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양호한 무역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 국가와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

-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상담하는 장소의 제공, 금융적 보증이나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또한 각국 대표단들은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 발전적 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중국에게도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소통을 통해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력 자강의 기회이기도 함.

□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임.

-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면 중국기업들에게 엄청난 압박과 도전을 초래할 것임.
- 이것은 중국기업들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임.

## (5) 절강대학(浙江大學)

■ 면담자 史晉川 교수, 姚先國 교수

□ 절강성은 상해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항저우(杭州)시는 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금융 및 상업 중심지인 상해와 보완관계를 갖고 있음. 상해는 중국 최대의 상업 및 금융중심지인 만큼, 상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항주는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음.

- 항저우의 산업에 특히 가흥개발구(嘉兴開發區, Jiaxing Economic Development Zone)의 역할이 큼. 많은 상해의 기업이 가흥개발구에 본부 및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가흥개발구에 입주한 기업도 상해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음.
  - 이미 많은 상해기업들이 가흥개발구에 연구소 및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상해 푸동 소프트웨어 파크 및 상해 도시건설디자인 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흥개발구에 많이 진출하고 있음.
  - 가흥개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80%가 상해와 연결된 사업임.
  
- 중국정부는 양자강 삼각주 통합개발전략(integrated development of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절강성의 가흥개발구임.
  - 가흥개발구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금년들어 4억불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1.3억불의 실질투자가 이루어졌음. 개발구에 있어서 고정자본 투자액도 매년 16.2%정도 늘어나고 있어, 16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5) 절강방성과기(浙江邦盛科技) 유한공사

##### ■ 면담자

- 王新宇(Wang Xin Yu) 관리담당자
- 赵心苑(Zhao Xin Yuan) 관리담당자

- 절강방성과기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색출하는 S/W의 개발에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2010년에 절강대학교 컴퓨터 공학 관련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창업함.
  - 2019년 현재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S/W 혹은 빅데이터 관련 고급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임.
  - 특히, 핵심 팀은 금융리스크의 모니터링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설계, 업무 분석, 기술 개발, 방안 자문, 애프터세일즈 등을 커버하는 완전한 팀을 형성하고 있음.
  
- 절강방성과기의 핵심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우리팡(流立方) S/W 초당 100만건 이상의 거래를 분석하여 비정상 거래를 색출하는 빅데이터 기술임.

- 100여 개의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 2400여 개의 규칙과 모델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 등 사기성 거래를 색출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S/W임.
- 이러한 기술은 현재 은행, 제3자 지급, 인터넷금융, 증권 및 보험 등 관련 400개에 육박하는 중대형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음.
- 금융거래의 실시간 분석 관련 분야에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절강방성과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는 고속철(高铁), 온라인쇼핑(网上购物), 공유자전거(共享单车), 알리페이(支付宝)를 새로운 4대 발명품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과 공유자전거는 알리페이나 웨이신(微信)와 같은 제3자 결제시스템의 기초 하에서 성장함.
- 알리페이나 웨이신의 안전한 결제방식이 온라인 거래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강방성과기의 기술과 같은 사기성 거래를 포함한 부정거래 실시간 분석방법이 필수적임.

□ 더욱이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지폐가 없는 세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절강방성과기의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백화점이나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알리페이나 웨이신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버스, 택시 등 공공교통, 재래시장의 과일가게, 커피숍 등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도 간편 결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상황
- 이러한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강방성과기와 같은 부정거래의 색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임.

#### (6) 가흥효성그룹(嘉兴晓星集团)

##### ■ 면담자

- 박창범 인력담당경리

- 효성그룹은 1999년부터 중국의 절강성 가흥경제개발구에 섬유 관련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총 4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1992년에 개발된 가흥경제개발구는 소위 장강삼각주 명주(长江三角洲明珠)-저장성, 강소성 및 상해의 경계에 위치-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대도시가 위치하여 기업입지로는 매우 적합한 곳으로 알려짐.
  - 효성그룹은 이 개발구에 효성스판덱스(가흥)유한공사에 1억3200만 달러, 효성화섬(가흥)유한공사에 2억7900만 달러, 효성국제무역(가흥)유한공사에 142만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스판덱스, 타이어, 커튼, 섬유사,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박막 등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한국 본사의 풍부한 관리 경험과 중국 근로자들에 대한 후한 복지 혜택으로 현지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와 이미지를 남기고 있음.
  - 한국 본사의 생산 공정과 우수한 설비, 선진 기술, 풍부한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생산 기반과 보완적 시판 네트워크 및 우수한 판매 기반을 마련함.
  - 또한 현지 근로자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후한 복지 혜택과 충분한 교육 기회, 그리고 넓은 비전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중국경제의 둔화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경기의 전반적 하락, 인건비, 지가, 물류비용 등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내수시장의 점유율 확대, 미중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음.
  - 더욱이 중국정부는 제조와 투자 중심에서 서비스와 내수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사업의 구조 조정을 고민하고 있음.
  
-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도 규제완화,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외국투자기업에게는 미흡한 수준임.
  - 그 동안 중앙정부의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방정부들이 실제 집행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왔으며,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이를 고려하여 국무원은 기업의 비즈니스 관련 환경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에 초안의 통과를 발표함.
  - 그러나 이것의 실제 전면적 실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로 예정됨.
- 향후 대중국 투자는 저비용의 생산기지라는 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대한 시장과 시장을 주도하는 소비계층의 흐름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 기초하는 전략이 필요함.
- 물가 및 임금의 높은 상승률,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큼.
  - 또한 많은 소비재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음.
  - 내수위주의 정책 변화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